

콘텐츠산업 상장사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변화 추이

<표> '10년 3분기~'11년 3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분	2010년 3분기	2010년 4분기	2011년 1분기	2011년 2분기	2011년 3분기	2011년 3분기 전년동기증감
전체	42.5%	45.1%	53.7%	53.5%	52.1%	9.6%p
게임	26.2%	31.1%	44.3%	43.4%	40.3%	14.1%p
지식정보	24.8%	26.4%	41.4%	38.5%	36.2%	11.4%p
출판	34.9%	37.2%	39.2%	39.5%	37.2%	2.3%p
방송	49.5%	50.4%	52.7%	49.2%	51.0%	1.5%p
광고	83.2%	91.4%	117.0%	139.4%	129.3%	46.1%p
영화	112.9%	122.5%	122.0%	118.0%	129.2%	16.3%p
음악	81.9%	80.1%	62.2%	62.7%	54.0%	△27.9%p
애니/캐릭터	55.9%	53.4%	54.3%	68.7%	67.6%	11.7%p

- 전체 콘텐츠산업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'11년 3분기 52.1%로 전년동기대비 9.6%p 증가
 - '10년 3분기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42.5%에서 '11년 2분기까지 상승세를 나타내다 '11년 3분기에 이르러 약간 하락
 - 게임은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'11년 3분기 40.3%로 '10년 3분기에서 '11년 1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하락세를 나타냄. 전체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나 전년동기대비 14.1%p 다소 높은 상승을 보임. 지식정보는 '11년 3분기 부채비율이 36.2%로 전년동기대비 11.4%p 상승
 - 광고, 영화 등은 '10년 3분기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및 증가추세를 나타냄
 - ※ 영화 및 광고는 '09년 4분기 이후 부채비율이 하락추세를 보이다 '10년 3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했으며, 광고는 '11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46.1%p 상승, 영화는 16.3%p 상승
 - ※ 출판 및 방송의 '11년 3분기 부채비율은 37.2%, 51.0%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, 전년동기대비 각각 2.3%p, 1.5%p 상승